

발전노동자

민주노조 사수
전력산업공공성 강화
애고자 원직복직
임금체계개악 저지
노동개악 저지

제210호

발행인: 신현규
발행일: 2015.10.27

민주노총 · 전국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KOREA POWER PLANT INDUSTRY UNION

노동자 서민의 마른수건 짜지 말고, 재벌의 공간을 열어라!

노동자의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 골목 상권이 죽어가는 반면, 백화점 명품관에 부자들이 득실대고 거리엔 역대 외제차가 늘어간다. IMF 이후 지금까지 가계소득분배율은 6.2% 낮아지고 기업소득분배율은 5.7% 높아졌다. 서민들은 1,000조원의 가계부채에 허리가 휘어지지만, 30대 재벌의 공간에는 710조원의 사내유보금이 쌓여 있다. 재벌에게 천문학적 이윤이 쌓일 때, 노동자 민중에게 쌓이는 것은 오직 부채뿐이다. 세계경제의 위기에도 급성장한 재벌의 화려한 그늘 뒤에는 850만의 비정규직, 400만의 근로빈곤층, 400만의 실질실업자가 있다. 이처럼 재벌의 부는 민중의 피와 땀을 약탈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박근혜정권과 재벌들은 ‘노동개혁’을 운운하며 노동자 서민에게 고통을 전가하려 하고 있다. 한국사회가 봉착하고 있는 경기 침체, 절박한 노동자서민의 생존권, 사회공공성 확보, 양극화 등의 문제는 자본의 위기를 노동자서민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서는 해결될 수 없다. 이제 더 이상 앓아서 당할 수는 없다. 사내유보금으로 대표되는 재벌 독점이윤의 환수를 통해 벼랑으로 내몰린 노동자 서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경제위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재벌 금고 열어
좋은 일자리
만들시다!**

가계부채 **1100조** vs
30대기업 사내유보금 **710조**



최저임금 1만원 적용(4년간)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기반확충

45만 청년실업 해소(3년간)

300인 이상 대기업
간접고용 비정규직
87만명 정규직화

**157조원만 있어도
할 수 있는 일**

10조
16조
9조 5천
120조



노사정야합 + 노동개악법안 발의, 연내 통과 추진

박근혜 노동개~~악~~악



자본이 그토록 원하는 '쉬운 해고 - 맘대로 해고' 시행되면

민주노조는 파괴, 어용노조는 활개, 노동자는 파리목숨, 현장은 쑥대밭!

해고를 제한했던 노동법 조항은 휴지조각, 모든 노동자는 죽어라 일만하는 노예로 전락!

누구도 예외는 없다. 노동자 서민이 모두 함께 하는 투쟁으로 막아야 한다!

